



목표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13~14>



천봉조 목사 (오리오교회)

우리는 마음의 깊은 변화와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는 데서 오는 행복을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된 길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 가르침을 잘 듣고 날로 새롭게 변화하며 놀랍게 성장하고 열매맺는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1.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

바울은 과거에는 인간적인 행복의 조건들을 자랑했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행복의 조건들을 완전히 버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믿기 전에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던 것은 다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배설물 같이 더럽고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사함 받았을 때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인생 최고의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장기려 박사는 의사가 된 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적인 진료를 했습니다. 그가 80회 생일을 맞았을 때 몇 가지 생의 기쁨에 대해 말했습니다. 첫째는, 결혼한 후 아들을 낳았을 때 천하를 얻은 기쁨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민족적인 기쁨을 맛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한 기쁨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기쁨은 이 기쁨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전기분해의 탁월한 이론가인 험프리 데이비 박사(1778-1829)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정신력, 천재성, 권력, 재물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택할 것이다. 믿음은 인생의 선을 훈련시키며, 희망이 쇠할 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삶과 죽음을 일깨워주며, 굴욕과 수치를 천국

으로 향하는 사다리가 되게 하고, 영원한 기쁨을 준다”

우리는 선한 행위나 세상의 복을 통해서 참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십자가의 공활을 믿는 길을 걸으므로써 마음의 깊은 변화와 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2.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목표를 향한 전력질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꺼번에 다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믿음의 성장과 진보라는 큰 목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는 목표만을 향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우승할 수 있습니다. 그와같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에 대한 집념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과거의 일을 다 잊고 또 미래의 다른 목표도 다 버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일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목표에 다다르면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상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는 만큼 하늘의 상이 큼니다.

사랑의 원자탄이신 순양원목사님의 정열적으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 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나의 일 되지 않게 하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을 최고로 고상한 지식인 것을 확신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
10名様～200名様のお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ゴ・カヤグム・舞踊) ◆韓国語講座 ◆各種こどもクラス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 ◆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税込	平日	休前日
シングル	¥6,500	¥6,000
ダブル	¥10,500	¥9,700
トリプル	¥13,500	¥12,500
※朝食・コーヒ―¥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

大阪교회 노인대학 소개

정연원 목사 (오사카교회)

매주 화요일 오전11시가 되면 교회 앞 주차장은 자전거로 가득하다. 노인대학이 있는 날이다. 2004년 4월 ‘大阪교회 경로학교’로 개교를 한 ‘大阪교회 노인대학’에 70살을 넘긴 대학생들이 모인다.(최고령자98세) 재일동포, 일본인, 기독교인, 타종교를 가진 어르신들이 속속 모인다. 2016년 년36회 노인참가자 주평균 100명, 협력자22명 년간 총인원 4,500명이 모였다.

왜, 노인대학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은 ‘초고령화사회’라는 말을 사용한다. 노인대학이 시작된 2004년 통계에 의하면 2천4백3십만명으로 19%였다. 그러나 작년 통계는 총인구 1억2천5백만명 중, UN이 정하는 노인(65세이상)인구가 27.1%로 3천4백4십만명에 그간 노인인구가 1천만명이 늘었다. 1963년 100세 이상이 153명이었으나 작년 보고에 의하면 65,962명이 되어 ‘인생백세’ (人生百歳)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린다. 시대의 변화에 건강해진 노인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2050년이 되면 인구 전체의 35%가 노인층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교회학교 교육대상이 되는 0세~14세가 전국



민12.5%의 상황에서 2배가 되는 노인교육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본다.

大阪교회는 금년으로 창립96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재일동포2세대들이 노년을 삶을 맞이하게 된 2000년대부터 교회 내 노인층은 교인1/3에 달했다.

여성회 내에 70세 이상된 회원으로 구성된 ‘나오미부’란 그룹이 있었다. 매주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간식을 나누며 친교를 하던 노인층 모임이었다. 당회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함께 참여하는 경로학교를 개설할 것을 구상하고 지도자 양성을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노인대학 연합회’가 주관하는 교사세미나에 참여하면서 교육방향과 방법 등에 대해 연구하고 大阪교회에 적합한 노인대학 운영방안을 세우게 되었다. 처음부터 ‘노인대학’이란 이름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으나 학생들의 심한 반발로(?) ‘경로학교’란 이름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선생님 우리는 소학교도 겨우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가 본적도 없는 데 어찌 대학생이 되겠습니까!’ 하는 어르신들의 의견이었다. 결국 2년 후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한 학과에서 2년간 수료하고 학사 모자와 가운을 입고 40명이 1회 졸업식을 하게 되었다. (2016년까지 145명)

2. 노인대학의 사회적, 교육적 의미

노년기를 맞이하는 노인세대는 4가지 고통을 가지고 산다. ‘경제적 고통’, 대가족제도의 붕괴와 효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수입원이 없어진 세대의 고통을 말한다. ‘건강의 고통’ 노인 75%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고령화 되면서 그 정도가 심화되는 것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게 된다. ‘역할 상실의 고통’은 직장이나 생업에서 손을 떼면서부터 오는 단절이 큰 고통이다.

정년을 맞이한 선배목사님의 말씀 중에, 40년 가까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매주 예배와 교우들을 돌보는 목회와 엄청난 양의 역할을 위해 동서분주하여 쉴틈없이 목회 현장에 있다가 은퇴를 하니 할 일이 없어진 그 허무감을 말씀해 주시던 모습, 노인 세대는 역할이 없다고 하는 이 고통을 겪고 있다. 또 하나는 ‘고독과 소외의 고통’을 안고 사는 세대가 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서의 노인층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사람이 40%에 달한다. 노년의 삶은 반려자가 꼭 필요로 하는 세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념에 따라 혹은 가족들의 불이해

로 인해 남은여생을 고독 속에서 보내야 하는 고통을 가진다.

교육적 의미를 살펴본다면, ‘인생백세’에 ‘평생교육’이라는 과제를 가지게 된다. 물론 大阪교회의 노인대학의 시작에서 크게 작용한 것은 지금 노년층의 어르신들이 살아온 시대에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한 세대라고 하는 사실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재일동포2세, 일본인 중에서도 일본어 글 읽기와 쓰기가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노인들,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영역에서부터 노인대학 학과목이 설정되었다. 현재 한국어 초급, 중급반, 일본어 초급, 중급반, 영어 초급, 중급반, 미술반, 한국전통예술반을 운영하고 있다.

3. 선교적 측면에서의 노인대학의 가능성

大阪교회의 노인대학의 첫번 과제는 종교적인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안내문을 만들면서 ‘大阪교회 노인대학은, 국적, 종교에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2004년 개교할때 진행 언어가 한국어였다. 그러나 한해 해를 더하면서 일본어로 바뀌게 된 것이다. 원인은 학생들의 분포가 한국어권에서 일본어권으로, 교인에서 비교인으로 변화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도 노인대학을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선생님 나는 한국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나는 절에 나갑니다. 혹은 창가학회에 가는데 학생으로 받아 주시나요?’ 하는 질문들이 오늘 노인대학을 규정하는 한 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이 부득불 절이나 신사에 가서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될 때 한 시간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현재 비교인이 절반 이상이 된 大阪교회 노인대학에 참석하는 노인 학생들은 이런 종교적 이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주 화요일을 기다리며 참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전11시부터 오후2시까지 4시간을 노인들은 예배당과 교회 안에 머물면서 활동을 함께 한다. 메시지가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직접적으로 성경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 보람되고 건강한 노인생활과 인간관계, 즐거움을 나누려고 노력한다.

근년 노인대학 학생들이 주일예배에 자발적으로 참석하게 되고 학습, 세례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선교적 측면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한다.

4. 노인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향

교회 내의 노인프로그램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접근되어야 한다. 우선, 노인교육과 프로그램은 단순한 복지의 차원을 넘어서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의 ‘노인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목표는 ‘노인에 의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미래 노인교육은 사회적인 소외 집단으로서의 단순한 보호와 우대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이 가진 고통과 고독에서 그들 스스로가 극복함으로써 지속적인 발달을 추구해 나가도록 돕는 노인들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고, 쇠퇴의 시기가 아닌 지속적인 발달과 성장의 시기로서의 노인기를 맞이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필요하다. 大阪教會 老人大學은 학생들의 참여와 발표, 봉사등을 통해 보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5. 大阪교회 노인대학 운영의 실제

수업 : 매주 화요일(비교적 교회적 활동이 적은 요일을 선택)

시간 : 오전11시부터 오후2시까지 4시간으로 운영.

프로그램 내용 :

● 오전11시~20분간 노래공부(한국, 일본어, 찬송, 민요, 가곡, 동



- 요등)
- 20분간의 메시지(노년생활에 관해, 간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방법)
- 20분, 체조와 안내(생일축하, 신입생 소개)
- 12시 점심식사/ 봉사자들에게 의한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고 있다.
- 12시30분-30분간 한국무용교실(전체대상)
- 오후 1시~2시(1시간)각반 공부(한국어, 일본어, 영어, 미술반, 한국전통예술반)
- 예산 : 년간 총예산 250만엔,
大阪教會, 機關, 個人 支援金 110만엔
大阪市福祉局 食事支援金 年間 80만엔

개인부담금 60만엔

5. 등록 학생수

- 총230명(지역주민 180명 78%, 교회원 50명 22%)
- 특별행사(건강강좌, 애신보육원생방문, 강연회, 연주회및 경로잔치, 미용봉사)
- 교사 및 봉사자 : 교역자, 봉사자, 노인지도자(70세 이상)
- 건강 및 교통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자동차 운영(운전자 노인층)
大阪教會 사회복지부와 여성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서부지방회 여성회와 장년회가 합동으로 수양회 개최



서부지방회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연합회·장년회 연합수양회를 작년 10월9일(주일)~10일(월), 국민숙사Seapal Suma에서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지방회 각 교회에서 교역자를 비롯하여 여성회 및 장년회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최예배에는 시온합창단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찬양과 이성우목사의 「신앙인의 인간관계」(레19: 14) 제목의 설교를 하였고, 이어진 강연(1)에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각자의 은사」(롬12:6-8)의 주제로 양영우목사가, 그리고 저녁 식사는 가을 바닷바람을 맞으며 야외테라스에서 바베큐와 함께 기타반주에 따라 즐겁게 노래하며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마지막에는 원을 만들어 찬양하고 한세일목사의 기도로 첫날을 마감했다. 둘째 날의 아침기도회는 한승철목사의 「하나된 진리」라는 제목의 설교, 제2강연에는 이증재목사에 의한 「신앙은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는 능력이다」(창50: 15~21)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가 주어졌다. 강연후에는 여성회·장년회가 각자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졌다. 여성회는 김필순목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성경우물가」의 시간을 가졌고, 장년회는 11월 개최 예정인 신도 모임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점심후 박두희목사의 진행으로 간증과 찬양과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으며 폐회예배는 지방회장 김승희목사의 「좋은 일꾼」(벧전4: 7~11)의 설교가 있었다. 참가자 전원이 은혜충만하여 기쁨으로 각자 귀가하였다. 이번 예배헌금 5만엔을 구마모토지진피해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구마모토교회에 보냈다. (보고:최미혜코)

서부지방회 크리스마스음악예배 개최 1각교회 촌극으로 예수 탄생 축하

12월11일(일), 서남지방회에서는 교회여성연합회, 청년회 주최로 크리스마스 음악예배를 후쿠오카중앙교회에서 가졌다. 80여 명의 참석자들이 예배당 가득이 모인 가운데 연합성가대의 성탄곡 합창, 각교회에서의 찬양 및 촌극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교토남부교회 「東九条 어린이식당」을 운영

허 백 기 (교토남부교회 목사)

작년9월 부터 교토 남부교회는 <東九条 어린이 식당> 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식당은 최근 2~3년 동안 늘어난 지역운동으로서 어린이 빈곤과 혼자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 “늦장을 부리고 있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 라고 민간 유지들이 손수 만든 식사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의미 있고 보람있는 이 일은 지역밀착형 자원봉사로써 전국적으로 붐이 되고 있다. 현재 평균 식사 인원은 40명으로서 반 수가 어린이들이다. 본래 목적은 만족하게 식사를 할 수 없거나 부모가 일하러 가서 없는 동안 외롭게 밥을 먹는 어린이들을 오게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싸게 부담 없이 누구나 밥을 먹을 수 있는 지역의 공생식당)의 분위기가 되어 있다(어린이는 무료, 어른은 300円). 본래 대상이었던 어린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활동이 지역에 알려지고 인정 및 신용을 얻으려면 앞으로 몇 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생식당> 적인 분위기가 괜찮고 자녀교육에 바쁜 지역의 부모들이 매주 얼굴을 대하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어린이들의 놀이에 함께 하기도 한다. 그 중에는 따뜻한 분위기를 찾아 오는 중년, 노년 분들, 청년회 전국협의회 출

신 목사를 도우러 오기도 하는 전협OB도 있어 참 좋은 만남의 장이 되고 있다. 전도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심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매주 교회의 문을 통하여 조용히 식사하고 가는 이것 자체가 좋은 선교활동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회는 많은 인원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곳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 식당에는 안성맞춤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관서지방회

신년사경회 개최

전도, 기도, 찬양, 말씀으로 힘쓰며

관서지방회 2017년 신년사경회가 전도부 주최로 1월 7일(토)부터 9일(월)까지, “마음 속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7일(토) 오후 7시 오사카교회 집회에서는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원중 목사(교토동산교회)의 「허가 둔한 자들의 사명」(출 4:1~17)의 설교를 하였다.

8일(주일) 오후 3시 역시 오사카교회 집회에서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성균 목사(와카마야제일교회)의 「거듭난 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실」(요일5:13~21)의 설교하였다.

9일(월) 오후 6시 교토교회에서 78명이 출석한 가운데 박희환 목사가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하였다. 특히 예배전의 <새한일찬송가> 강습시간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찬양을 배우는 큰 유익이 있었다.

9일 오후 3시부터는 관서지방회 교역자회 주최로 교역자 및 사모 세미나가 있었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청년육성」이라는 주제로, 김종권 목사(히라노교회)와 김성원장로(KCC관장)의 발제가 있었으며 청년선교에 초점을 맞춘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번 신년사경회는 간사이지방회 각교회가 2017년 새해를 충실하게 살고자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신년사경회를 위해서 오사카교회와 교토교회가 장소를 제공하고 예배를 준비해주었으며 여러 목회자와 신도들이 기도와 찬양, 반주, 통역, 안내등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봉사하였다.

앞으로도 간사이지방 각교회가 연합하여 전도와 기도,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받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

(보고 : 송남현목사)

서남지방회

정초사경회 도제직회 성료

한국에서 강사 초청해 새찬송가 학습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서남지방회 정초사경회 및 도제직회가 전도부 주최로 지난 1월8일(주일), 교회음악(예배와 찬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남지방회 각 교회에서 70 여 명의 인원이 후쿠오카 교회를 장소로 모여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강사로는 최은영장로(대구기독교TV방송국사장), 백낙원장로(대구예술대교수), 방성택집사(대구영남음대교수)를 초청해 총회에서 새롭게 발행한 신한일찬송가에 잘 모르는 찬송가를 전문가들을 통하여 배웠다.

도제직회는 신년도 각교회의 주요 행사, 과제 등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금번 처음으로 먼 곳 오키나와 교회에서도 담임목사와 장로가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며 연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예배회

제2회 중앙위원회 개최

관동지방 개교회 방문 활동도 가져

청년회 전국협의회 제2회 중앙위원회가 지난 1월14일~15일, 川崎교회에서 가졌다. 먼저 총회 신도위원장 김신야목사님의 기도후에 각부 보고와 각종 토의를 하였다. 토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2017년 2월 10일, 11일에 가지게 되는 청년을 위한 연수회 프로그램에 대하여
- ② 하기 수양회 장소 결정에 대하여
- ③ 청년 기도문에 대하여
- ④ 日/韓/在日 공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 ⑤ 주제 견해에 대하여

다음날에는 공동지방회 각교회(磐石교회, 川崎교회, 横須賀교회, 西新井교회, 品川교회, 東京東部교회, 船橋교회)에 흠어져 방문하여 청년회를 소개하고 찬조를 요청하였다. 찬조금 총액은 222,801円이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하여 전협 활동을 이해하고 협력을 받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며 여러 모양의 만남을 통하여 임원들이 자극을 받고 좋은 교류를 가졌다. 주님의 손 안에서 청년들의 교류가 활발해 질 것을 기도한다.

(보고 : 총무 오진아)

<총회사무소 휴관의 알림>

총회사무소는 2월20일~24일까지 「마이노리티 선교센터」 개설 공사로 업무를 쉽니다. 교정전화, FAX는 통신이 안됩니다. 메일은 가능합니다.

구마모토 소식

~가설단지에서 크리스마스회 개최~

2016년 12월 23일, 구마모토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御船町 南木倉 가설 단지 <모두의 집> 에서 구마모토 YMCA가 주최하는 크리스마스 축하회가 열렸습니다. 약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운데 김성효목사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로부터 시작하여 福岡雙葉学園高校 학생들의 핸드벨 연주와 찬미와 서남지방회 여성연합회 및 유지들에 의한 케이크 선물, 그리고 KCCJ와 일본기독교단 九州教区가 공동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 <엘 피스 구마모토> 에서 샌드위치와 과자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참석자 모두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가운데 산타가 등장하는 등 주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어우러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교회의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 같았습니다. 참석자들의 양 손에는 선물이 가득하여 돌아갔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 구마모토교회목사
엘피스구마모토 센터장 **金 聖 孝**